

#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관련된 요인

박승경  
대전보건대학교 뷰티케어과

##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Its Affecting Factors of Hair Designers Practicing in Beautician Shops

Sung-Kyeong Park  
Department of Beauty Care, Daejeon Health Institute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의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368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10월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각 독립변수에 대한 직업 전문성 인식도 점수를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 군보다 미혼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에서,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연령, 근무경력 및 월수입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여부, 직위,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헤어 디자이너들의 긍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 변수들을 적절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mong hair designers and identify related factors. The study subjects were 368 hair designers working in beauty salons in a local city. A survey was conducted in October 2019 using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gender, age, marital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alcohol drinking, job position, job career, monthly income, satisfaction in work, job fitness, and consideration of quitting the job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job perception. In terms of correlations, perceived professional job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work experience, and monthly income. The variables found to influenc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were gender, age, marital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drinking status, position, work experience, monthly income, satisfaction with work, aptitude for work, and intention to change jobs. The study shows that, to increas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mong hair designers, ways should be found that appropriately address these variables.

**Keywords** : Hair Designer, Professional Job Percep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Job Related Factor, Beautician Shop

---

\*Corresponding Author : Sung-Kyeong Park(Daejeon Health Institute Technology)  
email: pskki@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3,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October 17,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 1. 서론

헤어 미용업은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의해 대표적인 전문성을 갖는 서비스직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헤어 미용업소는 2016년에 96,000개소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126개소, 2018년에는 102,930개소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2016년에 150,633명이던 것이 2017년에는 158,983명, 2018년에는 159,98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헤어 미용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헤어 디자이너들은 고객의 취향에 맞게 헤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진다.

여러 직업에 있어서 직업 전문성이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및 직업 전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을 의미한다[2,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헤어 미용업은 서비스직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헤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헤어 디자이너들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과도한 업무요구, 자신의 역할문제, 직장 내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보수문제 등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9]. 이 같은 직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환경은 헤어 디자이너들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 및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직장생활에서의 일하는 보람을 찾지 못하게 되며, 직업에 대한 긍지도 저하되어 직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헤어 미용업은 외적으로는 사회적인 지위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내적으로는 업무 내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들은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긍지를 확보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헤어 디자이너들이 처해 있는 근무조건이나 근무내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처한 상황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 지방 도시에서 개업 중인 미용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표본 수의 추정은 G\*Power 3.1 프로그램[1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검정력 0.95, 효과크기 0.10, 유의수준 0.05, 예측변인 22개, 양측검정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336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4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선정은 해당 시의 4개 구(區)별로 100명씩 400명을 임의 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미비한 설문지 32명을 제외한 368명(회수율 92.0%)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조사방법 및 윤리적 배려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 및 조사원이 해당 미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각 업소의 대표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 조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시간 외에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윤리적 배려로 연구 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 2.3 연구에 사용한 변수

####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비만도를 조사하였다. 비만도(Body mass index; BMI)의 산정은 최근 건강검진시 측정한 신장과 체중을 기록하도록 하여 체중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눈 Quetelet 지수인  $[BMI(kg/m^2)=체중(kg)/$

신장(m<sup>2</sup>))으로 계산하였으며, 19.9 이하를 저체중군, 20.0~24.9를 정상군, 25.0 이상을 비만군으로 구분하였다.

### 2.3.2 건강관련행위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으로는 1일 평균수면 시간, 아침식사 여부, 간식섭취 여부, 운동여부, 흡연여부 및 음주여부를 조사하였다. 1일 평균수면 시간은 Breslow[11]의 건강습관지수(Health Practice Index; HPI)를 사용하여 1일 평균 수면시간을 「적당하다(7~8시간)」와 「적당하지 않다(7시간미만~8시간이상)」로 구분하였다.

### 2.3.3 직업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직책, 근무경력, 1일 평균 근무시간, 월수입,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만족도,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적성 여부,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조사하였다.

### 2.3.4 직업전문성 인식도

직업전문성 인식도의 측정은 Hall's Professionalism Scale[12,13]을 우리나라 근무환경에 맞게 변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14]. 이 도구는 전문조직 준거성, 사회적 중요성, 자율적 상호통제, 직업적 소명감 및 업무의 자율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5개 문항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방향으로 환산한다. 각각의 합산 점수(총득점 범위: 25~125점)가 높을수록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0.784이었다.

##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각 독립변수에 대한 직업전문성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으며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또한 직업전문성인식도와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수준은 Table 1과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 총점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p=0.045$ ), 연령이 낮을수록( $p < 0.001$ ),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p < 0.001$ ),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p=0.025$ )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전문성 인식도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전문조직 준거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p=0.049$ ), 연령이 낮을수록( $p < 0.001$ ),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p < 0.001$ ) 유의하게 낮았고, 자율적 상호통제는 연령이 낮을수록( $p=0.002$ ),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p=0.003$ ),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p < 0.001$ ) 유의하게 낮았다. 업무 자율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p=0.005$ ), 연령이 낮을수록( $p < 0.001$ ),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p < 0.001$ ),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p=0.034$ ) 유의하게 낮았다.

### 3.2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 총점은 수면시간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적당하지 않다는 군에서( $p=0.023$ ), 아침 식사를 매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p=0.042$ ),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p=0.023$ ),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에서( $p=0.047$ )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전문성 인식도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전문조직 준거성은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13$ ), 사회적 중요성은 수면시간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적당하지 않다는 군에서( $p=0.026$ ), 간식을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에서( $p=0.045$ ) 유의하게 낮았다. 자율적 상호통제는 아침 식사를 매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p=0.030$ ), 직업적 소명감은 아침 식사를 매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p=0.045$ ),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p=0.024$ ),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에서( $p=0.048$ ) 유의하게 낮았다. 업무 자율성은 수면시간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적당하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p=0.029$ ).

### 3.3 직업관련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수

Table 1.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Autonom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ex	Male	66(17.9)	85.36±10.37	15.98±2.59	17.06±2.67	16.54±3.64	18.42±3.60	17.34±3.84
	Female	302(82.1)	82.59±8.22	15.22±2.86	17.04±2.65	16.42±2.72	17.84±3.19	16.04±3.30
	p-value		0.045	0.049	0.976	0.804	0.193	0.005
Age(years)	≤24	143(38.9)	80.65±8.52	14.85±2.88	16.98±2.84	16.05±2.53	17.88±3.18	14.81±2.94
	25-29	126(34.2)	83.17±7.45	15.30±2.59	17.00±2.58	16.10±2.70	18.14±3.19	16.67±3.00
	30≤	99(26.9)	86.50±9.30	16.18±2.88	17.21±2.45	17.44±3.41	17.78±3.51	17.87±3.78
	p-value		<0.001	<0.001	0.780	0.002	0.695	<0.001
Education	≤High school	243(66.0)	83.15±8.87	15.36±2.69	16.69±2.62	16.36±2.83	18.10±3.30	16.42±3.41
	College≤	125(34.0)	82.96±8.38	15.36±3.09	17.36±2.68	16.61±3.04	17.64±3.19	15.98±3.48
	p-value		0.848	0.985	0.110	0.428	0.196	0.241
Marital status	Married	91(24.7)	86.28±9.65	16.26±3.06	17.04±2.63	17.36±3.47	17.86±3.48	17.74±3.71
	Unmarried	277(75.3)	82.03±8.10	15.06±2.69	17.05±2.66	16.14±2.63	17.97±3.21	15.79±3.20
	p-value		<0.001	<0.001	0.975	0.003	0.788	<0.00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56(15.2)	86.30±9.83	15.78±3.02	17.16±2.47	17.96±3.19	18.07±3.37	17.32±3.84
	Fair	242(65.8)	82.69±8.14	15.32±2.73	16.92±2.62	16.16±2.80	18.11±3.16	16.17±3.37
	Unhealthy	70(19.0)	81.87±9.13	15.17±3.01	17.41±2.85	16.22±2.67	17.25±3.53	15.80±3.16
	p-value		0.025	0.446	0.371	<0.001	0.145	0.034
BMI(kg/m <sup>2</sup> )	<18.5	69(18.8)	82.78±7.99	15.52±2.16	17.02±2.90	16.30±3.02	18.27±2.63	15.65±3.00
	18.5-22.9	259(70.4)	83.36±9.04	15.31±3.06	17.00±2.61	16.60±2.83	17.98±3.45	16.45±3.55
	23.0≤	40(10.9)	81.85±7.51	15.40±2.28	17.40±2.44	15.67±3.10	17.15±2.99	16.22±3.30
	p-value		0.563	0.818	0.687	0.152	0.148	0.228
Total		368(100.0)	83.08±8.69	15.36±2.83	17.05±2.83	16.44±2.90	17.94±3.27	16.27±3.43

준은 Table 3과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 총점은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1), 근무경력이 짧을수록(p<0.001),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1),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01),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1),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48)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전문성 인식도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전문조직 준거성은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1), 근무경력이 짧을수록(p<0.001),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1),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25) 유의하게 낮았다. 사회적 중요성은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01),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8),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40) 유의하게 낮았다. 자율적 상호통제는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11), 근무경력이 짧을수록(p=0.029), 월수입이 낮을수록(p=0.038), 업무가 적성

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40)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적 소명감은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01),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1),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낮았다. 업무 자율성은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p<0.001), 근무경력이 짧을수록(p<0.001),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군보다 12시간 이상인 군에서(p=0.025),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1),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27),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2) 유의하게 낮았다.

### 3.4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연령(r=0.285, p<0.01), 근무경력(r=0.289, p<0.01) 및 월수입(r=0.29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Table 2.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ccording to the health related behavior factors

Variables		N(%)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Autonom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leeping hours (/day)	Good(7-8h)	211(57.3)	85.06±8.18	15.35±2.76	18.91±2.63	16.46±2.84	17.88±3.21	17.44±3.35
	Poor(≤7h or 8h≤)	157(42.7)	81.12±9.37	15.38±2.93	15.22±2.67	16.42±2.99	18.03±3.36	15.05±3.54
	p-value		0.023	0.916	0.026	0.874	0.674	0.029
Having breakfast	Everyday	94(25.5)	84.64±9.54	15.60±2.96	16.90±2.39	17.92±3.26	18.44±3.34	16.76±3.78
	Sometime/never	274(74.5)	81.89±8.39	15.28±2.78	17.10±2.73	15.28±2.75	17.12±3.23	16.10±3.30
	p-value		0.042	0.337	0.533	0.030	0.045	0.136
Snacking	Sometime (≤2-3times /week)	136(37.0)	83.55±9.55	15.21±2.96	18.75±2.73	16.61±3.06	17.85±3.58	16.42±3.40
	Often (2-3times≤ /week)	232(63.0)	82.40±8.15	15.45±2.75	16.22±2.59	16.35±2.81	17.98±3.06	16.18±3.46
	p-value		0.364	0.435	0.045	0.414	0.845	0.524
Exercise/sports	Everyday /sometime	180(48.9)	85.53±8.68	15.27±3.01	17.08±2.71	16.36±2.86	18.69±3.09	16.11±3.43
	Never	188(51.1)	82.61±8.70	15.44±2.64	17.02±2.59	16.52±2.94	16.19±3.43	16.43±3.43
	p-value		0.023	0.568	0.823	0.598	0.024	0.381
Smoking habits	Smoking	136(37.0)	83.08±9.64	15.34±2.64	17.07±2.64	16.26±2.96	17.34±3.40	16.05±3.86
	Non-smoking	232(63.0)	83.09±8.11	15.37±2.94	17.03±2.66	16.55±2.86	18.71±3.17	16.40±3.16
	p-value		0.998	0.924	0.904	0.354	0.048	0.351
Alcohol drinking	Sometime (≤2-3days /week)	13(3.5)	83.15±9.20	15.46±2.29	17.23±3.13	16.53±2.53	17.00±3.36	16.92±1.93
	Often (2-3days≤ /week)	355(96.5)	79.23±8.65	13.43±2.82	17.04±2.63	15.48±2.91	17.98±3.27	15.29±3.48
	p-value		0.047	0.013	0.805	0.251	0.288	0.528
Total		368(100.0)	83.08±8.69	15.36±2.83	17.05±2.83	16.44±2.90	17.94±3.27	16.27±3.43

다. 하위영역에서의 전문조직 준거성은 연령( $r=0.226$ ,  $p<0.05$ ), 근무경력( $r=0.240$ ,  $p<0.01$ ) 및 수입( $r=0.217$ ,  $p<0.05$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율적 상호 통제는 연령( $r=0.202$ ,  $p<0.05$ ), 근무경력( $r=0.195$ ,  $p<0.05$ ) 및 월수입( $r=0.218$ ,  $p<0.05$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업무 자율성은 연령( $r=0.402$ ,  $p<0.01$ ), 근무경력( $r=0.422$ ,  $p<0.01$ ), 1일 근무시간( $r=0.291$ ,  $p<0.05$ ), 월수입( $r=0.408$ ,  $p<0.01$ ) 및 1일 수면시간( $r=0.237$ ,  $p<0.05$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3.5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변수

를 독립변수로,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석의 실행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6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563~1.824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여부, 직위,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 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6.3%이었다.

Table 3.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ccording to the job related factors

Variables		N(%)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Autonomy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Job position	Specialist	218(59.2)	84.98±8.38	15.85±2.80	17.06±2.71	16.75±3.13	17.83±3.30	17.47±3.32
	Assistant	150(40.8)	80.34±8.42	14.65±2.71	17.03±2.56	16.00±2.47	18.11±3.23	14.53±2.79
	p-value		<0.001	<0.001	0.913	<0.011	0.424	<0.001
Job career (year)	≤1	87(23.6)	80.40±8.46	14.56±2.64	17.08±2.80	16.21±2.59	18.24±3.30	14.29±3.00
	1-4	113(30.7)	81.56±8.46	15.06±2.95	16.98±2.87	16.06±2.43	17.93±3.02	15.52±2.88
	5-9	104(28.3)	84.09±7.17	15.55±2.48	17.10±2.44	16.30±2.79	17.78±3.43	17.33±2.93
	10≤	64(17.4)	87.79±9.64	16.67±2.95	17.04±2.38	17.67±3.84	17.82±3.44	18.57±3.74
	p-value		<0.001	<0.001	0.988	0.029	0.795	<0.001
Working hour/day	<12	101(27.4)	84.03±8.16	15.64±2.87	16.68±2.79	16.74±2.71	18.03±3.03	16.93±3.36
	12≤	267(72.6)	82.73±8.87	15.25±2.81	17.19±2.58	16.33±2.97	17.91±3.36	16.03±3.43
	p-value		0.198	0.245	0.101	0.233	0.743	0.025
Monthly income (₩10,000)	≤150	46(12.5)	80.60±7.21	14.39±2.42	17.58±2.48	16.04±2.15	18.58±3.49	14.00±2.78
	150-250	200(54.3)	81.64±8.58	15.12±2.84	16.82±2.78	16.23±2.59	17.77±3.18	15.69±2.90
	250≤	122(33.2)	86.40±8.48	16.12±2.78	17.22±2.45	17.45±3.52	17.99±3.32	18.09±3.63
	p-value		<0.001	<0.001	0.139	0.038	0.313	<0.001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	235(63.9)	84.72±8.51	15.61±2.84	17.37±2.75	16.51±2.82	18.64±3.15	16.57±3.52
	Dissatisfaction	133(36.1)	80.20±8.27	14.92±2.75	16.48±2.36	16.32±3.05	16.71±3.12	15.75±3.22
	p-value		<0.001	0.025	<0.001	0.535	<0.001	0.027
Fitness of the job	Fit	247(67.1)	84.43±9.02	15.48±3.05	17.29±2.75	17.24±2.90	18.36±3.25	16.64±3.57
	Unfit	121(32.9)	80.33±7.29	15.11±2.29	16.55±2.35	16.04±2.87	17.10±3.17	15.52±3.02
	p-value		<0.001	0.196	0.008	0.040	<0.001	0.002
Considering quitting the job	With	81(22.0)	81.53±8.98	15.23±2.94	16.07±2.65	16.28±3.26	16.85±3.59	16.28±2.70
	Without	287(78.0)	83.52±8.58	15.40±2.80	17.90±2.65	16.49±2.80	18.25±3.11	16.27±3.62
	p-value		0.048	0.642	0.040	0.565	<0.001	0.984
Total		368(100.0)	83.08±8.69	15.36±2.83	17.05±2.83	16.44±2.90	17.94±3.27	16.27±3.43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Autonomy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Age	0.285**	0.226*	0.134	0.202*	0.045	0.402**
BMI	0.043	0.043	0.081	0.012	0.053	0.079
Job career	0.289**	0.240**	0.139	0.195*	0.038	0.422**
Working hour/day	0.025	0.014	0.191	0.005	0.017	0.291*
Monthly income	0.295**	0.217*	0.093	0.218*	0.044	0.408**
Sleeping hours/day	0.054	0.030	0.108	0.023	0.019	0.237*

\*: p<0.05, \*\*: p<0.01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job perception

Variable	B	SE	Beta	t	p-value
Sex(male/female)	-0.625	0.249	-0.174	-2.542	0.014
Age(year)	0.417	0.174	0.192	2.752	0.008
Marital status(married/unmarried)	-1.202	1.272	-0.086	-2.245	0.034
Subjective health status(unhealthy, fair/healthy)	2.409	1.216	0.100	2.382	0.028
Sleeping hours(/day)	0.314	0.201	0.062	1.503	0.102
Having breakfast(everyday/sometime)	0.312	0.264	0.051	1.037	0.142
Exercise(everyday/sometime)	0.614	0.206	0.051	1.425	0.115
Alcohol drinking(often/sometime)	0.556	0.179	0.100	3.099	0.002
Job position(assistant/specialist)	0.644	0.360	0.084	2.485	0.014
Job career(year)	0.824	0.385	0.072	2.818	0.024
Monthly income	0.546	0.219	0.088	3.632	0.008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dissatisfaction/satisfaction)	3.511	1.036	0.194	3.390	0.001
Fitness of the job(unfit/fit)	3.591	0.741	0.164	4.947	0.006
Considering quitting the job(with/without)	3.774	0.925	0.145	4.044	0.008

Adjusted R<sup>2</sup> = 0.463 (F=8.916, p<0.001)

#### 4. 고찰

본 연구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로서 본 연구에 사용된 직업전문성 인식도 측정도구는 국제적으로 타당도가 검증된 Hall's Professionalism Scale[12,13]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alpha$  값도 0.7 이상으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5]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한 Shin[15]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BMI가 낮을수록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Park[1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언어치료사[17], 음악치료사

[18] 및 보육교사[19]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개원 의사[20]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직업 전문성 인식도 총점은 수면시간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적당하지 않다는 군에서, 아침 식사를 매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 디자이너의 건강관련행위 특성에 따른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한 Shin[15]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않는다는 군에서,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유의하게 낮다고 하였으며,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Park[16]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특성별 직업 전문성 인식도 총점은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5]의 연구에서도 직위가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업무의 신체적 부담정도가 적당하다는 군보다 힘들다는 군에서,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직업에 대한 적성이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직업전환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이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Shin[21]등은 의무기록사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직위가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Han[17]은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Kang[19]은 경력이 낮고 보수가 적을수록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 관련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연령, 근무경력 및 월수입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업 전문성 인식도도 낮아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5,15,17,19,20]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 미용실에 근무하는 헤어 디자이너들은 근무 특성상 연령과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업무 요구도는 증가되고, 업무에 대한 통제력은 저하되며, 상대적으로 월수입은 낮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은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도도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여부, 직위,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 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5]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성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무만족도 및 학력을 지적하였으며,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한 Shin[14]의 연구에서는 성별,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 전환 의사, 음주상태, 흡연상태,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관련행위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관련 특성과 같은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한 지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체 헤어 디자이너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cross-sectional)로서 한 시점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직업 전문성 인식도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 기입 방식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응답의 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헤어 디자이너들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대한 조사 보고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가 헤어 디자이너의 직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는 헤어 디자이너들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과 같은 여러 요인별로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헤어 디자이너의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는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으므로 본 연구에서 지적된 다양한 관련 요인들이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의 직업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G\*Power 3.1 프로그램[10]에 근거하여 368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9년 10월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각 독립변수에 대한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t-test 및 ANOVA로 검증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여부, 직위,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헤어디자이너의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 같은 관련 변수들을 적절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

- [1] Statistics Korea. (2019). National Business Investigation Survey, 2019.
- [2] Friedson E. (1970). Professional dominance: The Social Structure of Medical Care. New York, Atherton Press Inc. pp. 71-84.
- [3] Pavalco RM. (1971).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sca, IL: F.E. Peacock Publishers Inc, pp. 102-114.
- [4] J. L. Cheong, Y. J. So. (1998). A study of Beautician Stress by work condition in Chon Ju Area Beauty shop, Journal of the Kor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4, No. 1, pp. 275-287.
- [5] S. M. Cho. (2005).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hairdressers practicing in beautician shop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5.
- [6] H. O. Yang, H. Y. Kwak, (2009). A study on the professionalism of estheticia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Vol. 10, No. 6, pp. 1380-1388.
- [7] L. Kang, H. S. Cho. (2011). Relationship of professional identity, emotional labor and depression in beauty business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7, pp. 3030-303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7.3030>
- [8] H. R. Kim, I. H. Lee. (2014). An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for 'beautician(skin)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suggested by 'CS' on profession and practice suit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6, pp. 3512-352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512>
- [9] M. S. Lee, Y. M. Jin. (2019). The Influence of Hairdresser's Perception of Specialty and Expectations on Emotional Responses and Satisfaction. J. Kor. Soc. Cosm. Vol. 25, No. 4, pp. 804-811.
- [10]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l. "G\*power 3: (2007).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scie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2, No. 2, pp. 175-191.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11] Breslow L, Belloc NB. (1972).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s. Prev Med, Vol. 1, pp. 409-421.
- [12] Hall RH. (1968).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 Sociol Rev. Vol. 33, No. 1, pp. 92-104.
- [13] Snizek WE. Hall's (1972).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rical reassessment. Am Socio Review, Vol. 37, No. 1, pp. 109-157.
- [14] Y. S. Kang, S. Kam, M. H. Yeh. (1997). Interns' and residents'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Its effect to their job satisfaction. Korean J Prev Med Public Health, Vol. 30, No. 1, pp. 209-228.
- [15] E. S. Shin. (2016).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edical recorders engaged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229-24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29>
- [16] A. S. Park, Y. C. Cho. (2011).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on job satisfaction in nursing offic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0, pp. 4502-45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0.4502>
- [17] C. G. Han, S. S. Hwang. (2012). Professionalism perception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1, No. 4, pp. 287-305.
- [18] J. A. Cho. (2016). Music Therapists' perceptions on professionalism.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 13, No. 2, pp. 31-48. DOI: <https://doi.org/10.21187/jmh.2016.13.2.31>
- [19] R. H. Kang. (2006). A study of the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1, pp. 71-88.
- [20] D. G. Jin, S. Kam, Y. S. Kang, Y. K. Cho, et al. (2003).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octors practicing in local Daegu city. Korea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Vol. 36, No. 2, pp. 153-162.

- [21] T. S. Shin, Y. C. Cho. (2014).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edical recorders engaged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258-427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258>
- 

박 승 경(Sung-Kyeong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6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피부미용과 부교수

<관심분야>

공중보건학, 건강관리, 피부미용